

# MODERN DANCE CONCERT

안무 / 장 정 윤

■ 1985. 6. 7(금) 오후 7시 ■ 부산산업대학교 콘서트 홀

아름다운 나라 美國에서 칠년간 춤만 추다가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온,  
현대무용의 按舞로 U.C.L.A에서  
碩士學位를 받고,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무용과에  
근무하는,  
스스로 몸담고 있는 무용실로 부터의 外出을 拒絕한  
고집스런 女子。

뼈만 앙상한 부처의 苦行像을 좋아하여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凍土의 大地위에서  
裸足으로 춤추던 女子。

그런 춤들과 이어진 그 女의 삶 속의  
作品들을 모아 여러분을 모십니다.



— 순 서 —

- 세 개의 기본을 위한 構成 Triplet / Shift / Fall  
음악 / Anthony Crescione
- Pachelbel 의 “Cannon”
- 비  
음악 / 고대 사원의 하이프
- .....
- 말없는 噴水  
음악 / J. S. Bach
- 내 이름은  
음악 / Steven Brown
- Companion ship  
음악 / David Axelrod

출연 / 장 정 운 (동아대학교 체육무용과 재직)

동아대 : 김미경, 박정애, 신정자,  
이정옥, 최남주, 이준

부산여대 : 정은주, 김미숙, 이경숙

후원 / 동아대학교 체육대학